



서석진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 정책관

“기존 산업에는 SW 경쟁력 입히는 정책 펼 것”

글_박수현 중앙일보 기자 african@joongang.co.kr

‘소프트웨어(SW)’가 정부의 핵심 정책목표로 떠올랐다. **소** 지난 7월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의 사령탑을 맡은 최양희 장관은 취임 직후 ‘소프트웨어 중심사회’를 선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부처별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모든 산업과 국가 전반에 SW를 확산시키고 이를 통해 가치를 창출 하자는 것이다.

SW가 화두로 떠오른 최근, 미래부의 SW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서석진(56) 미래부 소프트웨어 정책관(국장)을 만났다. 국립전파연구원장에서 지난 7월 21일 미래부로 부임한 서 국장은 한양대 전자공학 학·석사와 미 오클라호마주립대 경영학 석사(MBA)를 마쳤다. 제22회 기술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정보통신부 광대역통합망과·기술정책팀 등을 거쳐 지식경제부 산업융합정책과장, 부산·강원 지방우정청장 등을 역임했다.

Q. 미래부의 핵심 과제를 맡게 된 소감은?

A. 대학 때부터 프로그래밍을 할 기회가 많았다. 기술고시에 불기 전 2년간 SW에 폭 빠졌던 시절도 있었다. 벤처기업하는 지인들이 많아 실제로 SW 개발자가 될 뻔하기도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공직에서 SW 정책을 직접 다루는 자리를 맡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SW 실전의 전문가들을 많이 만나 얘기를 듣고 있다.

Q. 소프트웨어 중심사회라는 게 무슨 뜻인가.

A. 한마디로 SW로 먹고 사는 사회다. SW가 혁신과 성장, 가치창출의 중심이 되고 개인이나 기업·국가의 경쟁력도 SW가 좌우하는 사회다. 사회 전반에 SW가 적용되도록 만들자는 얘기인데, 사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미 사회는 SW를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 SW는 더이상 하드웨어(HW)의 부속물이 아니다.

Q. 과거에도 정부는 SW 정책을 내놓았었는데, 다른 점이 뭐냐.

A. 지난 20~30년 동안에도 SW 정책은 있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정책들이 다 나왔다. 그런데도 달라지지 않은 이유가 뭘까. 수영 잘하는 법이 나온 책을 100권 읽는다고 수영을 잘하는 게 아니다. 실전에 강해야 한다. 그런 점이 부족했다. 또 그동안은 SW산업 내부 문제만 들여다봤다. 사회와 산업 전반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거시적으로 들여다보지 못했다. SI(System Integration) 업종의 공공사업 참여 문제나 SW 인력 처우 문제에 대한 대증요법만 나왔다. 이제는 사회 전반에 SW를 적용하자는 관점으로 정부 정책이 바뀌는 것이다. 특정 부처 한 곳에서만 SW 정책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처와 지자체가 SW 중심사회를 실

현하겠다고 나섰다라는 점에서 과거 정책과 다르다.

Q. 미래부의 역할은 뭔가

A. 미래부가 SW 정책의 컨트롤 타워라는 말도 있는데, 컨트롤 타워 같은 말은 SW에 안 맞는 용어다. 사실 SW는 컨트롤 타워를 두고 밀어붙인다고 되는 산업이 아니다.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런 생태계가 잘 구축된 곳이 미국이다. 하지만 자생적인 생태계가 만들어지기 힘든 우리 여건에서 정부는 '유사' 생태계라도 만들어지도록 추진 중이며 이를 우리가 돕겠다는 것이다. 미래부는 그런 조력자 역할을 하겠다.

Q. 우선적으로 추진하려는 정책은 무엇인가.

A. 우리 현실을 알고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성공할 수 있는 정책,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부터 먼저 집중할 계획이다. 순수한 SW 개발 역량만 갖고 전 세계 시장에서 SW로 1등 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가 이제부터 노력한다고 해서 오라클이나 SAP같은 SW 기업을 배출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기존 사업 분야(도메인)에서 갖고 있는 경쟁력에다 SW를 결합한 분야를 만든다면 우리도 해볼 만하다. 기존 산업에 SW 경쟁력을 입히는 전략이다. 이런 성공 사례들이 쌓이다 보면 순수 SW 역량만으로 승부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나올 것이다. 또 하나는 SW 자체 품질보다도 SW를 활용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산업에 성공 가능성이 높다.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나 빈 방 공유 기업인 에어비앤비가 그 예다.

Q. 구체적으로 정부가 어떻게 SW기업을 도와줄 수 있나.

A. 단기적으로는 유망한 스타트업을 실리콘밸리의 생태계와 연결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SW 상품은 태생부터 글로벌을 지향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에서 투자자를 찾고, 제품 내놓고, IPO(기업공개)까지 할 수 있게 물꼬를 터 줄 생각이다. 사실 SW는 그렇게 도전하기 좋은 분야다. 시제품 제작 비용도 들지 않고 실력과 아이디어 그리고 노트북만 있으면 프로그래밍해서 만들어볼 수 있기에 창업하기 좋다. 그런 점에서 최근 구글이 국내에 창업가들을 위한 공간인 '구글 서울 캠퍼스'를 만들기로 한 일이나 이스라엘 요즈마 그룹이 한국 벤처에 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하는 시도들은 정부로서 반가운 일이다.

Q. 글로벌 성장 가능성이 컸던 국내 벤처기업들이 실패한 사례도 많다.

A. 한국인들의 아이디어나 창의력, 열정은 세계적인 수준에서 봐도 뛰어나다. 특히 SW와 결합하기 좋은 성향을 지녔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원조격인 싸이월드나 아이러브스쿨, 무료 화상통화 스카이프의 원조인 다이얼패드 모두 한국이 세계 최초였다. 후이즈라는 도메인등록 서비스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한 원인은 우리가 글로벌 시장의 현주소를 몰랐기 때문이다. 싸이월드가 나온 2001년에 한국의 유선 인터넷망은 세계 최고였지만, 다른 나라들은 형편없이 느렸다. 서비스가 앞서 있었다라도 글로벌 시장의 흐름과 함께 가야 성공한다. 과거에 실패했지만 우리에게 이런 역량이 있다는 점에서 10년 뒤에는 SW로 먹고사는 SW중심사회가 가능할 것이라고 낙관한다.

Q. 국내 SW 생태계는 어떻게 살릴 계획인가

A. 국내 벤처 생태계를 살리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포기 해선 안 된다. 2000년대 초 IT버블 붕괴 이후로 벤처 생태계가 많이 가라앉아 있다. 엔젤투자는 물론이고 초기 투자자가 굉장히 드물다. 벤처기업에 투자하면서 매출을 따진다거나, 금융권 대출 받을 때도 벤처기업의 기술성을 보지 않고 담보를 내놓으라고 하는 보수적인 제도와 관행들을 바꿔나가야 한다.

Q. 초·중·고부터 대학까지 SW교육을 강화하는 내용도 소개해달라.

A. SW는 기존의 엘리트 체육·예술 교육처럼 가서는 안 된다. 모든 학생들이 컴퓨터 코딩 같은 프로그래밍을 통해 문제해결 능력, 컴퓨터적 사고, 논리적·분석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컴퓨터와 사람이 소통하는 수단이 SW라는 것을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교육할 계획이다. 초·중·고 학생들의 코딩은 사범대나 교육대학을 졸업한 교사만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정보 교과 교사들과 은퇴한 SW 개발자, 대학원생들을 활용할 수 있다. 삼성이나 네이버 같은 기업들과 협업할 기회도 많다. 아이들이 코딩을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 대학에서는 SW 전공 교육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인문사회 계열 학생들도 SW를 알고 졸업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대학의 SW 교육은 미래부가 대학과 직접 협의해서 바뀌나갈 계획이다.

Q. SW인력의 처우문제는 계속 남는 문제인데.

A. SW 개발자들에 대한 가장 좋은 배려는 이들이 일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다. SW 공인기술자 노임 단가를 인상한다고 이들의 처우가 개선되는 게 아니다. 앞으로 개발자 커뮤니티 등과 소통을 많이 할 계획이다. 하도급 금지법안도 하반기에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 (ST)